



미 증시, 경기 민감주, 기술주 간 순환매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4 일(월) 미국 증시는 지수 레벨 부담과 6 월 FOMC 경계심리가 상존한 가운데, 경기 민감주 관련 업종 위주로 차익실현 압력을 받으면서 장중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임. 다만 장 후반 이후 단기적인 금리 상단 제한 인식 속 기술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3%, S&P500 +0.2%,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기술(+1.0%), 커뮤니케이션(+0.7%), 부동산(+0.4%) 등이 강세, 소재(-1.3%), 금융(-1.0%), 산업재(-0.5%)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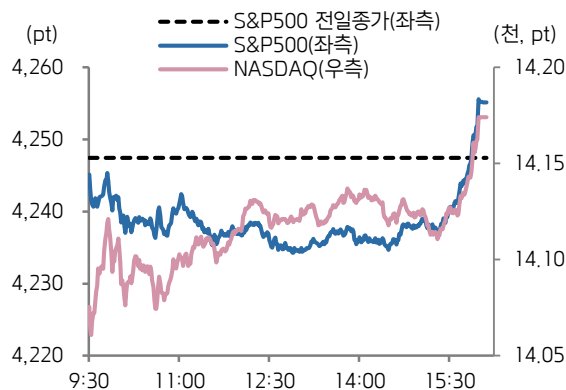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서는 관광객수 회복, 코로나 확진자 감소추세 지속 등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영국에서는 인도발 변종 코로나로 인해 최근 신규 확진자가 8,000 명대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7 월 19 일로 연기(기존 6 월 21 일)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럽내 코로나 확산 우려가 경기 민감주들의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 반면 기술, 성장주들은 테슬라(+1.3%), 애플(+2.5%) 등 대표주들의 개별호재성 재료에서 기인한 주가 강세 및 시장금리 상승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임.

미국 증시 평가

지난 10 일(목)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이지만, 이를 둘러싼 불안심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 뉴욕 연안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향후 1 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0%로 전월(3.4%)에 비해 상승하면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후 수개월 동안에는 수시로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시장에 부각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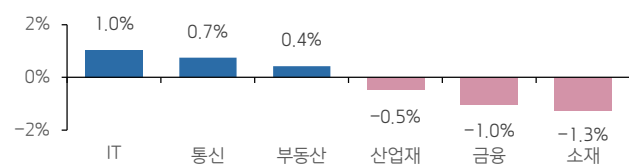
15~16 일(현지시간) 예정된 6 월 FOMC 에서는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금번 회의 결과를 주시할 필요. 또한 6 월 FOMC 이후 블랙아웃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5 월 근원 소비자 물가 급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진단도 짚고 넘어가야 할 요인이라고 판단.

S&P500 일중 차트(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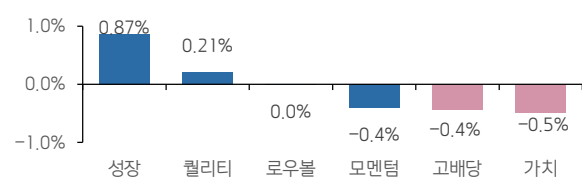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경기 민감주들의 추가적인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2. 업종간, 테마간 순환매 장세 전개 여부 3. 6 월 이후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건 호전 여부

한국 증시 리뷰

14 일(월)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 이후 안도감 지속, 미국 금리 하락 등으로 언택트, 제약 및 바이오주들이 강세로 상승 출발. 이후 6 월 FOMC 경계심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약세압력을 받으면서 장중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임. 다만 장 후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축소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최고치(3,252pt)를 경신(코스피 +0.1%, 코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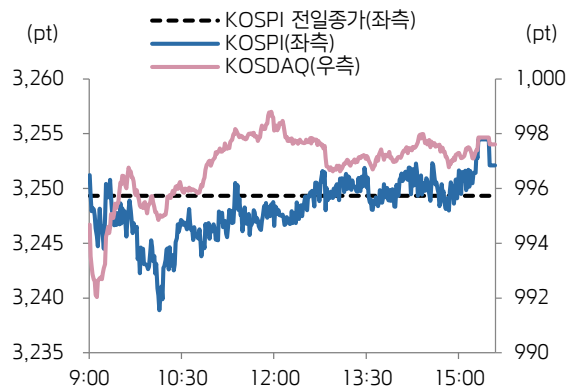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종이목재(+3.0%), 서비스(+2.2%), 의약품(+2.0%) 등이 강세, 증권(-1.0%), 금융(-0.8%), 보험(-0.7%)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3 억원, 3,330 억원 순매도, 개인이 3,515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에서는 미국 기술주 강세에 영향을 받아 금리 민감도가 완화된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주들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장중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 업종 뿐만 아니라 테마 측면에서도 뚜렷한(or 무거운) 주도 테마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별 이슈에 따라 테마주들 간에도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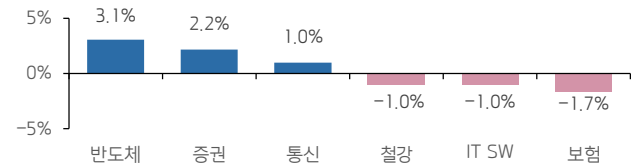
장중에 코스피는 신고가를 재차 경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일 장 마감 후 미국 소매판매, 산업생산, 생산자 물가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관망심리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단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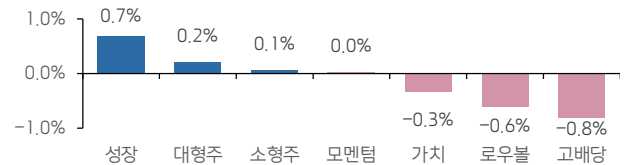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이 증가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